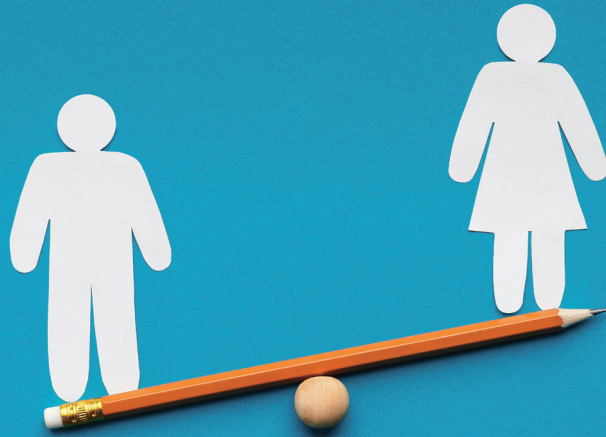


초저출산 시대에 살아남는 학원



Written By 「학원용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CATS(www.cats4me.net) 단비교육」염윤정 연구소장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원업계는 먼저 영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6월 기준)

APT_LAP

2023년 학생수

학령기	나이	인구 (명)
고령	3 18세	449,800
	2 17세	441,514
	1 16세	463,696
중년	3 15세	492,473
	2 14세	458,413
	1 13세	452,202
초년	6 12세	487,829
	5 11세	478,168
	4 10세	468,707
	3 9세	439,953
	2 8세	446,578
	1 7세	432,065
영유아	6세	386,547
	5세	348,224
	4세	319,882
	3세	292,357
	2세	272,467
	1세	257,293
	0세	236,544

[표. 2023년 학생수]

통계자료에서 보듯 당장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지만 3년 후부터는 그 여파가 학원으로 밀려온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학령 인구를 기준으로 생겨난 학원들이 모두 살아 남기 어려울 구조다. 누가 살아남느냐 생존 게임을 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화 '오징어게임' 처럼 생존을 운에 맡기는 게임은 아니다. 정해진 미래를 잘 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다. 이제 예정된 미래에 살아남는 학원이 되기 위한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할 때다. 3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학생수가 줄면 그 동네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부터 문을

닫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학생들의 성적을 잘 올려주거나,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원만이 살아남는다. 즉, '성적 향상'과 '학생이 좋아하는 학원'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학원은 3년 뒤에 더 웃을 수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아이들 시험 성적 향상은 모든 학원들에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각자 학원만의 노하우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출문제를 확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경험으로 알기에 중점적으로 숙제를 내주고 지도를 한다. 그러나 학생 개인 간 격차가 있고, 한두 명이 아니라서 맞춤 학습을 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숙제를 내줘도 학생이 공부를 안 하거나 너무 뒤쳐진 아이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아이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부터 탓하고 학원을 바꾸는 학부모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필자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단비교육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기업에 몸담고 있다. 단비교육을 설립한 주요 멤버들은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크림(i-scream.co.kr)이라고 하는 교사용 학습자료 플랫폼을 개발했던 사람들이다. 이후 학생용 자기주도학습용 아이스크림홈런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단비교육을 설립하여 현재 1등인 유아용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인 윈크(wink)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학원과 공부방 선생님들을 위한 무료 학습자료 플랫폼 개츠(cats4me.net)를 만들어서 론칭했다.

필자가 제시하는 해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을 소개한 이유와 해답을 짐작하셨을 것 같다. 필자는 초저출산 시대에 살아남는 학원이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에듀테크 활용 능력'이라고 확신한다. 에듀테크는 단순히 인터넷에 교육자료를 제공하던 초기와는 많이 다르다. 단비교육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각종시험 자료 등을 구축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경험과 노력만으로 할수 없는 수준의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방법과 적응률 높은 시험 예상문제를 제시해 주는 단계까지 와있다.

성공하는 학원의 두 번째 요소인 학생의 흥미를 위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초개인 맞춤학습을 설계해 준다. 앞으로 더 진화할 것이다. 이런 기술개발은 학원이나 선생님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 밖이다.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법은 더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는 수준이다. 다만 단계가 좀 많을 뿐이다.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과제를 내주고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숙제를 하고 개인에 맞는 보충학습을 자동처방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갖도록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있다. 어른들의 염려와 달리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고 즐기까지 한다. 책을 사면 PDF파일로 만들어서 보는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것은 문하다. 학원은 이 흐름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에듀테크가 만능은 아니지만 활용을 하는 선생님과 하지 않는 선생님의 차이는 학생이 제일 먼저 느낄 것이다. 그리고 학습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초저출산 시대에 승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